

야구기록 활용에 기반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cellent Operation of the “Korea Baseball Hall of Fame” Based on Baseball Records

최 태 석 (Tae-Suk Choi)**

임 진 희 (Jin-Hee Y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야구기록에 기반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
| 2. 야구기록과 스포츠 기록관리 현황 | 운영 방안 |
| 3. 미국과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사례 연구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야구기록 활용에 기반하여 ‘한국야구명예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에 의한 미국과 일본 명예의 전당 사례 분석과 한국 야구기록의 종류와 관리현황, 현업에서 종사 중인 야구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종합 방안으로서 ‘한국야구명예의전당’에서 수집, 관리, 활용해야 할 관련 아카이브 컬렉션 구성과 야구 영웅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구술 확보의 필요성, 야구 경기기록의 DB화와 데이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야구기록, 스포츠기록관리, 야구영웅, 영웅 아카이브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direction for operating the “Korea Baseball of Fame” based on baseball records. To clarify problems, a literature review on the case analysis of the “Hall of Fam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 assortment and management of Korean baseball records, and a consultation with officials who work in the baseball industry were progress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building an archive database to operate the “Korea Baseball Hall of Fame” effectively. First, archives will be collected, and then managed and utilized at the “Korea Baseball Hall of Fame.” Second, to preserve the memories of baseball heroes, an oral archive will be constructed. Third, baseball records will be assorted and stored in a database.

Keywords: Korea Baseball Hall of Fame, baseball records, sports record management, baseball heroes, heroes archive

* 이 논문은 2015년 2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 석사논문을 요약·수정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알엠소프트 기록연구소 연구원

(suk@rmssoft.co.kr, taesukct89@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인간과기억아카이브(hmarchives.org)’ 아키비스트

(yimjhkr@mj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6년 7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6년 8월 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8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57-177, 201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3.157>>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에 이르러 일반 대중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가되고,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스포츠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송은영, 2009). 사람들은 스포츠 참여 및 관람을 통해 스포츠 자체가 제공해주는 오락성이나 감동, 혹은 선수들이 제공해 주는 활동을 통해 대리만족이나 정화작용이라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 인간의 최고 욕구인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김재운, 2003).

실제로 IMF 경제 위기에 놓였던 1998년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던 박세리, 한국인 메이저리거 시대 문을 열며 동양인 메이저리거 개인통산 최다승(124승)을 기록한 박찬호를 보고 자란 아이들을 뜻하는 박세리, 박찬호 키즈(Kids)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했다. 단순히 스포츠라는 장르를 뛰어넘어 하나의 국민 문화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특히 프로야구는 프로스포츠 종목 중에서 국제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리그까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3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야구장 문화 등이 결합하여 국민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이와 같은 관심과 흥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2년 12월 한국야구위원회 아카이브센터 설치를 통해, 기존 경기기록물 이외의 운영기록물과 행정

기록물, 역사기록물을 관리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며 기록물을 보존과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기고자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부산 기장군이 인천을 제치며 입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2014년 3월 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 협약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산시는 명예의 전당 건립과 함께 주변 부지에 야구테마파크 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을 능가하는 국제적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에는 매체의 발달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표현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발전되면서 단순히 스포츠 관람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선수로서 업적을 세운 이들에 대한 ‘스포츠 영웅’으로서의 가치부여까지 확대되고 있다(임재구, 2009). 스포츠 영웅은 “모든 스포츠인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포츠인이자 청소년 및 현역선수들의 역할모델로서 기여도가 높은 자”로서(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2012)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 기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체육인의 위상제고 등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미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해당분야의 인물이 주는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을 세우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해당분야의 역사성과 정통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종목별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영웅 선정을 통해 스포츠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스포츠 영웅”에 대하여 단기간의 성과를 통한 ‘스

타'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기록관리 체계의 부실로 인해 한국 스포츠가 지니는 역사적 정통성을 고취하거나 체육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박일혁 외, 2013). 프로야구 역시 원년에 기록한 중요한 기록지들이 야구인들의 무관심과 대한야구협회의 무지로 인해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야구 기록지마저 목동구장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프로구단들은 소속 선수들의 경기기록 데이터나 박물 일부에 대해서만 사료로 보관 중이며 『공공기록물관리예안법』과 같은 일정한 법률이 아닌 무작위의 수집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2012년 설치된 한국야구위원회 아카이브 센터 또한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기록물 수량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아카이브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보유 기록물이 야구 관련 박물에만 편중되다보니 아카이브 센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야구라는 스포츠가 문화콘텐츠로 인식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공동체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야구를 통해 생성되는 모든 기록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팬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2016년 완공될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야구기록 활용을 바탕으로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야구기록 활용에 기반하여 '한국

야구 명예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야구기록의 관리현황과 스포츠 영웅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 홈페이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홈페이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헌 조사를 통해 스포츠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관리현황과 야구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헌액 대상자 선정과 아카이브 구축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문헌조사를 통해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10명의 야구 현업 종사자들과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면담 등을 종합하여 야구기록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최근 공공, 대학, 기업기록 등 여러 영역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스포츠 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제기되기 시작한 수준이며, 연구 진행 상황 역시 일부분에 그치는 상황이다.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역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박일혁, 김주학, 천호준, 최형준, 인상우(2013)는 스포츠 사이버 명예의 전당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미디어가 스포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스포츠 선수로서 이들

의 행적을 가치화하고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스포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포츠에 업적을 남긴 '영웅'에 대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통한 '스타'의 차원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마련에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상우, 나영일, 천호준(2007)은 스포츠 현장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지식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 사장되거나 아무런 보존 관리의 체계도 없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권선형(2013)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2년에 설치된 한국야구위원회 아카이브 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존재한 상태임을 밝혔다. 해결방안으로 미국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의 기록물 관리방안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야구위원회 아카이브 센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은화(2009)는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개인 기록의 수집은 아키비스트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기에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수집 이전에 기록의 존재를 파악해야 하며 수집 후에 기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기록 분석에 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개인 기록은 공공 기록과 같은 맥락에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 기록들에 대한 확보 및 수집과 관련된 관리 방안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은영(2009)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4년부터 진행 중인 구술채록사업과 ISAD(G)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술기록은 기록학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하였으며, 최송화(2008)는 기록물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스포츠 기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스포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의 시급성을 올림픽 영상기록을 중심으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유리, 임진희(2016)는 공공기록에 비해 개인기록은 스스로가 보존/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기록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구축과 개인 기록 자체의 성격을 고려한 기록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프로야구 30주년을 맞이했던 2011년에 맞추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30주년 레전드 올스타전을 개최하였으며, 각 포지션 별로 레전드들의 영상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며, 2014년에는 30명의 야구 원로 인터뷰를 담은 구술영상을 함께 한국야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완공된다면, 이와 같은 영상은 일반 기록물에서 찾아낼 수 없는 야구 영웅의 생애와 감동의 순간을 담은 구술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 관련 아카이브 전시와 더불어 중요한 기록물로 수집 및 관리해야 한다.

스포츠 영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아카이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기록관리 체계의 부실과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각종 명예의 전당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영웅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들에

대한 기록관리까지 함께 동반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스포츠 종목 가운데 최초로 지어지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은 야구기록을 바탕으로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헌액(獻額) 대상자와 입성자에 대한 기록관리와 야구 영웅들의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관리까지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야구기록과 스포츠 기록관리 현황

2.1 야구기록 기록관리 현황

야구는 데이터 스포츠라고 일컫는다. 야구기록에서 쓰이는 타율, 평균자책점, 승률, 타점, 도루 모두 데이터에 의거한다. 스포츠 종목에도 관련 기록은 존재하지만 야구는 더욱이 통계학적 기록에 따른 성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다. 그러나 데이터도 기록화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타자의 한 타석, 투수의 공 1개 모두 소중하게 누적되고 그 기록이 데이터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누적된 기록은 그 나라의 야구 역사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야구기록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야구경기기록물과 야구관련 기관기록물로 구분된다.

첫 번째인 야구경기기록물은 실제 프로야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기록이다. 야구가 태동하던 1800년대 중반에는 지금의 안타나 실책, 홈런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채 공을 멀리 쳐서 점수를 얻는 단순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헨리 채드윅(Henry Chadwick)에 의해 야구 기록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1859년에 최초로 야구규칙집을 펴냈고, 1862

년에는 기존의 박스스코어를 개편하여 본격적인 기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1869년 창간한 야구연감은 현재 공식 야구연감으로 개편되었으며 1938년 야구기자로서는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되었다. 한국에 야구기록이 도입된 것은 1906년 3월 15일 최초의 한국 야구 경기가 열린 이후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에 의해 단순히 야구경기만 열리는 것이 아닌 경기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일본의 방식에 착안하여 기록을 시작하였고, 일본의 서적을 토대로 기록법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한국 야구 경기 기록이 탄생하였다.

심판의 플레이 선언에 따라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27개의 아웃카운트가 모두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기록은 KBO 공식 기록원에 의해 기록된다. 매 경기마다 2명의 공식 기록원이 배정되며, 1명은 수기로, 1명은 컴퓨터로 입력하여 이를 각종 포털 혹은 계약 업체에 제공되어 팬들에게 문자 혹은 영상으로 제공된다. 공식 기록원이 기록하는 모든 정보는 KBO 공식 기록업체인 '스포츠투아이'에 의해 관리된다. 가공을 거치지 않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기록의 경우 투수는 볼과 스트라이크를 합산한 총 투구개수, 피안타, 4사구, 홈런, 삼진, 실점, 자책점, 상대 타자, 투구이닝 총 9개가 발생하며, 타자는 그날 타순의 순번, 상대팀 투수를 맞아 상대하는 볼과 스트라이크 개수, 타격 결과, 안타(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득점, 도루, 4사구, 삼진 총 9개가 발생한다. 한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기록을 종합하게 되면 그날의 경기결과가 자동적으로 합산되고, 팀 기록과 개인 기록 또한 누적된다. 현재 KBO 공식 기록원이 기록해야 하는 경기기록은 타자 16개, 야수 5개, 투수가 15개로 총 36가지이다. 경기

〈그림 1〉 KBO 공식 기록지

참고: <http://osen.mt.co.kr/article/G1110373267>

시간, 날씨, 심판 등 기본 기록까지 모두 포함한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경기기록은 KBO 공식 경기기록지 〈그림 1〉을 통해 정리된다.

현재 프로야구와 관련된 기록과 통계 관련 서비스는 한국야구위원회 홈페이지와 스탯티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프로원년 1982년부터 현재까지 선수 기록을 모두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년도를 확인하면 해당년도에 뛰었던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찾고자 하는 선수를 클릭하게 되면 그 선수가 활동한 통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 외에 역대기록실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역대 타이틀 수상 선수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원년부터 2015년도까지 주요 타이틀에 대하여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놓은 페이지로, 역대 최고기록과 역대 구단성적, 역대 최고기록 10결까지 야구 팬들이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에 제공 중인 기록의 일부를 〈표 1〉

을 통해 제공한다.

〈표 1〉 역대 최고기록 타율 1982~1990년

연도	선수	소속	타율
1982	백인천	MBC	0.412
1983	장효조	삼성	0.369
1984	이만수	삼성	0.340
1985	장효조	삼성	0.373
1986	장효조	삼성	0.329
1987	장효조	삼성	0.387
1988	김상훈	MBC	0.354
1989	고원부	빙그레	0.327
1990	한대화	해태	0.335

참고: 한국야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reabaseball.com/History/Player/HitterRecord.aspx>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기록지를 통해 제시되는 기본 기록들을 통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다년간 쌓인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세이버메트릭스’라는 분야를 통해 재평가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이버메트릭션이라 부른다. 기본 기

록을 통계학적/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투수는 (WHIP, FIP, QS), 타자는 (OPS, SLG, RC, RC27, wOBA), 종합적으로 WAR, BABIP 등으로 불리우는 용어들을 활용한다. 이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봉협상, 구단과 구단의 트레이드, 고교 선수 선발 등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세이버메트릭스와 같은 기록 가공을 통해 시즌기록, 평균기록에 비해 타자 혹은 투수가 우수한 정도, 상대투수와의 우위정도 등을 기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개인기록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통해 선수 개인과 팀 기록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매 시즌마다 선수들의 개인 기록, 팀 기록을 한데 정리하여 KBO연감과 레코드북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생산되고 환산되어 여러 가지 유용한 통계가 생산되는데 관련 데이터를 통해 구단전략분석 뿐만 아니라 일반 야구팬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귀중한 기록지들은 야구인의 무관심과 대한야구협회의 무지로 인해 상당수 분실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야구 기록에 대하여 취재한 다수의 기사 인터뷰를 검토한 결과 1980년대 대한야구협회 관계자들이 '저런 종이들을 보관해서 뭐하느냐'며 과거의 귀중한 기록지들을 대거 폐기했고, 동대문구 장 창고가 불타 사라진 기록지들도 수천여장에 이른다. 이러한 기록들 모두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 나라의 야구 역사임을 인지했다면 기록지를 평가절하해서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지들은 각지에 산재되어 있으며, 창고에서 훼손된 채 보관 중에 있는 열악한 현실을 파악하였다.

프로야구가 발전됨에 따라 기록과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기록의 확인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기본 경기기록은 제공되지만 기록을 기반으로 상세한 세부기록 및 가공기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개막에 맞춰 선수 정보를 최신화하고 기록실 부분을 강화하여 세부기록 및 2군 기록을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지속적으로 기록과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야구 관련기관 기록물로서 프로야구의 행정적, 정책적, 경영적 업무를 다루는 기관들의 기록물을 일컫는다. 한국프로야구의 대표기관인 한국야구위원회는 매년 벌어지는 KBO 리그 관리 및 총괄, 야구경기 기록,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및 분석, KBO 연감 및 간행물 발간 등 한국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관리와 부가적인 중계권활동, 아마추어 야구 보급, 복지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의 범주는 야구 행정기록물, 야구 운영기록물, 야구 경기기록물, 야구 역사기록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구 행정기록물은 한국프로야구 활동과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 부서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물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는 구본능 총재 아래 기획, 홍보, 관리, 재무, 운영, 육성 총 6개 팀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부서에서 생산되는 업무의 결과물을 행정기록물이라 지칭한다. 야구 운영기록물 역시 한국프로야구 활동과 관련한 한국야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나 6개팀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시에 발생하는 기록물을 지칭한다. 행정 및 운영기록물은 기관 전체의 지

식 및 관리 환경 등을 담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일컫기도 한다.

야구 경기기록물은 위에서 제시했던 경기 기록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지칭하며, 주로 경기 내용을 포괄하되, 경기 기록을 표현하는 기록물 용지, 영상, 전자기록물 등의 다양한 매체로 보관되고 있다. 1차적으로 경기 기록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은 재생산 및 가공과정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야구 역사기록물은 한국야구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포괄하는 기록물을 지칭하며, 한국야구의 역사가 모두 담겨있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다양한 기록물 가운데 가장 보존 및 관리가 중요시되는 기록물이다.

기타 기록물로 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물이 아닌 야구 팬, 관계자, 언론사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물을 일컫는다. 이들에 의해 생산되는 기록물은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각자의 기록물에 대해 의미부여와 상황설명이 가능한 기록물로서 대부분 야구경기에서 파생되는 비정형 데이터로 존재한다. 그날 경기의 사진, 경기 영상, 경기 결과에 따른 기사, 평론 등이 해당되며 정보 매체의 발달에 따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지정기록물제도가 운영 중이다. 지정대상과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의 단계를 거치며, 현재 12호까지 국가지정기록물이 지정되어 있다. 프로야구 기타 기록물 역시 프로야구와 관련된 개인의 삶 혹은 각종단체, 지역이 보유하고

고 있는 기록까지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일반적인 기관의 기록물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기록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아카이브 센터와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구 경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발생하는 기록물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록물들은 국내 외 유사기관들과 비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인식한 후 유사기관과 조직 간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2 스포츠영웅 기록관리 현황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이래 68년이 지난 올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에서 스포츠 역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차지한다.

이처럼 스포츠를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스포츠영웅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영웅 사업”을 2010년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으로서 시작하였다. 2011년 첫 번째 시행년도에는故손기정과 김성집 원로를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 서윤복 원로,故민관식 원로, 장창선 원로를 선정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양정모 원로, 박신자 원로, 김운용 원로까지 총 8명이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스포츠영웅 선정과 더불어 이들의 기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록을 보존 및 활용하고자

진행 중이다. 매해 스포츠영웅에 대한 자서전을 발간하여 이에 대한 출판기념회와 사진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이버)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는데, 영웅에 대한 업적소개, 발전단계, 영웅 자서전을 회고록과 발간내용, E-BOOK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스포츠영웅 외에 체육원로들에 대한 구술채록 영상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초기 구축된 사이트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접근성 향상,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5년에 사이트를 고도화했다. 고도화와 더불어 홈페이지에는 스포츠영웅 자서전이 게시되어 있다.

오프라인 도서로는 8명의 자서전이 모두 제작되었으나 홈페이지에는 故손기정, 김성집만 E-BOOK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6명의 영웅에 대해서는 온라인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 체육사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직접 제작한 50, 70, 90년사에 대한 책자가 E-BOOK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각종 국제대회에 대한 정보와 스포츠사료, 사진이 제공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영웅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3. 미국과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사례 연구

3.1 경기기록을 활용한 미국과 일본 명예의 전당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 과정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건설의 기

원은 1936년 쿠퍼스 타운 출신인 스테판 C.클락(Stephen C.Clark)이 야구를 국민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고 유명 선수 및 야구관계자를 기념 및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

1936년 첫 개관식에 타이쿱과 베이브루스를 비롯한 5명이 초대 헌액(獻額) 되었으며, 3년 후 1939년부터 미국야구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의 자료 및 박물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추가 건립하였다. 2016년 1월 현재 총 312명이 입회되었다. 매년 12월 투표를 통해 후년 1월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7월에 입회식을 진행한다.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은 1957년 야구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공적을 기리고 야구인 자긍심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다. 1988년 도쿄돔 구장으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19세기 일본에 야구가 전해진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1959년 일본야구를 태동시키고 초대 커미셔너를 맡은 일본야구의 대부 SHORIKI Matsutaro를 비롯하여 9명이 선정되었고, 2016년 현재 192명이 가입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초창기부터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제정되었으며 오래된 역사에 맞게 조금씩 규정이 변화하면서 후보자들이 입성되었다. 헌액(獻額) 대상자가 입성하기 위한 종합된 선정기준은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며, 선수의 경우 10년 이상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며, 은퇴한 지 5년이 돼야 후보에 등재될 수 있다. 선수들의 통산 기록을 토대로 6명으로 구성된 최종 후보 자격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게 되면 최종 후보로 등재될 수 있다. 후보자로서 투수는 300승과

〈표 2〉 미국,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 기준

헌액(獻額) 부문	미국		일본		
	선수	베테랑위원회	선수	전문가	특별헌액(獻額)
설립시기	1936년		1957년		
선수경력 규정	10년 이상의 선수 경력		경력 기준 X		
은퇴 후 최초 후보 입당 조건	은퇴 후 5년		은퇴 후 5년		
후보 자격 유지 기간	최초 후보 등록부터 10년간 (2015년 개정)		최초 후보 등록부터 15년간		
투표 구성원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10년 이상 취재 경험		야구 보도 15년 이상 취재 경험		
최종 헌액(獻額) 득표율	75%		75%		
1인당 투표행사 수	최대 10표		7표	3표	3표
관련 홈페이지 링크	http://baseballhall.org/		http://english.baseball-museum.or.jp/index.html		

참고: 미국, 일본 야구명예의 전당 선정 기준 종합

3000이닝, 타자는 3000안타, 500홈런을 달성할 경우 입성 보충수표와도 같은 기록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야구기록들이 발달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레이잉크와 블랙잉크를 통해 명예의 전당 예측 점수를 매겨 입성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최종 후보로서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블랙 잉크는 선수가 리그1위를 차지한 기록이 있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레이잉크는 리그위가 아닌 10위에만 들어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헌액(獻額) 입성자들의 평균 점수와 새롭게 등재되는 대상자와의 비교를 진행하여 명예의 전당에 입성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중이다.

또 다른 기록으로 JAWS(Jaffe WAR Score system)이 있다. 해당 선수의 통산 WAR(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표현하는 야구 스탯)과 전성기 7년 합산 WAR을 합친 뒤 나누면 수치가 된다. 통산 성적과 전성기 성적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또한 절대적인 경기 기록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명구회라는 일본

프로야구 스타 출신들의 모임을 통해 대략적인 입성 기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00승, 2000안타, 250세이브 이상을 거둔 선수들로서 일본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기록을 제외한 다른 리그의 기록은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표 3〉 블랙 잉크와 그레이 잉크에서 부여되는 항목별 점수

	투수	타자
4점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타율, 홈런, 타점
3점	이닝, 승률, 세이브	득점, 안타, 장타율
2점	볼넷, 9이닝당 피안타	2루타, 볼넷, 도루
1점	출장경기, 선발, 완봉	출장경기, 타수, 3루타

참고: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224&aid=0000003109>

이처럼 명예의 전당 입성을 위해 선수가 통산 1군 무대에서 기록한 모든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은퇴 후 후보에 등재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경기기록 외에도 세이버매트릭스

스탯을 활용한 지표를 심사에 도입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경기기록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3.2 미국/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아카이브 운영 현황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달리 복합적인 기관으로서 메이저리그 야구사에 전설적인 선수 및 관계자 등을 선출해서 기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야구팬들을 위해 이들과 관련된 문서, 사진, 카드, 영상, 박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이는 명예의 전당 및 박물관의 기본 사명이기도 하다.

미국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와 관련 담당자문의 메일(2014.9.16)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기록물은 주로 명예의 전당에 입회자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수집 및 기증을 통해 입수하게 된다. 입회자 외에도 1871년부터 활약한 메이저리그 선수 17,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그로리그와 여성 리그의 선수, 야구 관계자와 감독, 방송캐스터, 심판 등의 기록물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미국 및 세계의 야구 문화의 다양한 야구 규칙, 경기의 역사, 지리, 경제, 언어, 정치, 의학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 기록물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의 기록물은 특성상 입회자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 기증받기 때문에 원 질서를

기준으로 하는 정리시스템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다양한 유형을 보존하는데 상대적인 이점을 가진 유형별 분류를 채택하여 아카이브 및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사진 기록 컬렉션, 영상 기록 컬렉션 등으로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은 철저한 기록물관리를 위해 아키비스트(Archivist)를 채용하고 있다. 전문적인 기록물관리의 훈련·교육을 받은 아키비스트는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지만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아키비스트가 모두 관리할 수 없어 보조 아키비스트(Assistant Archivist)와 보존기록물 준학예사(Archive Associate)를 함께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관리는 야구영역만으로 관리대상을 한정된 특수기관이므로 기관 자체에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박물관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10주 동안 진행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여 이들을 직접 채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중요 야구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 등 적절한 물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적절한 기록 보존 환경을 위해 아카이브 및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사진 기록 컬렉션, 영상 기록 컬렉션, 박물 수장고 등으로 구분을 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컬렉션별 보존 장소에는 환경조절장치, 통풍장치, 소화장비, 보안 장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여러 유형의 기록물은 야구 역사의 귀중한 조각으로서 다뤄질 것이므로 손상·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에서는 야구박물관과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야구 역사 캠프, 야구배트 제작과정/ 수제 글러브 제작과정 등의 사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프로야구연맹의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뉴스레터, 이용안내, 전시, 도서관,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3만여 점의 소장 자료 중 2천여 점을 온라인에서 전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분류목록을 제공하고, 야구배트, 글러브, 스파이크, 유니폼 각각 50점씩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명예의 전당에서는 헌액(獻額) 대상자를 현시기별, 부문별, 이름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입회된 명예인의 생애와 업적 등을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돛구장을 보유한 구단을 중심으로 돛구장 내에 구단 아카이브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후쿠오카 야후 저팬 돛(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홈구장)에 위치한 오 사다하루(왕정치) 박물관의 왕정치 역사관에서는 개인의 생애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왕정치의 탄생기, 대형타 자로의 도약기, 동경의 영웅시대, 홈런 세계 신 기록의 시기, 은퇴, 요미우리 감독시대, 감독의 용퇴 등으로 구성되어 한 선수의 연대기를 각종 기록들을 통해 전시 중이다. 이러한 전시 구성을 통해 그의 생애와 더불어 프로야구 활동에서 이룩한 다양한 기록들을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함께 표현함으로써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다. 야구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역사

를 알고 있고, 이러한 기록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역사관이 존재하고 이 역사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과거의 향수와 정취를 느끼게 하려는 목적으로 박물관과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4. 야구기록에 기반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운영 방안

4.1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기기록의 활용

앞서 미국과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과 아카이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수 개개인의 기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록물과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역시 대상자 선정과 더불어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초창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PDF와 E-BOOK 형태로 발행 중인 레코드 북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가 편의성과 가독성을 고려한 주요 기록들만 정리되어 있다. 주요 관심 기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보면 각 구단의 대표적인 선수들 외에 은퇴 선수 다수의 기록을 참고할 수 없다. 통산기록에서 순위권을 차지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서 선수 생활 동안 가치 있는 기록을 세운 선수들의 기록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정비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에서 심사위원단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활용 중인 그레이잉크와 블랙잉크를 통한 점수화 작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같은

지표를 생산하여 점수를 측정하고 경기기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된다면 기관의 투명성 또한 함께 확보하고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3장에서 소개한 미국의 블랙링크와 그레이링크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을 점수화 작업을 실시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블랙링크와 그레이링크 투수와 타자

투수이름	블랙링크 점수	투수이름	그레이 링크점수
선동열	110	선동열	205
정민철	27	송진우	202
정민태	25	정민철	162
김용수	22	이강철	159
송진우	21	김용수	138
이상훈	19 공동 6위	정민태	공동 5위
최동원		김시진	120
구대성		최동원	118
김시진	16	윤학길	공동 8위
김현욱	15	한용덕	115
윤학길	공동 10위	조계현	111

타자이름	블랙링크 점수	타자이름	그레이 링크점수
양준혁	58	양준혁	349
장종훈	54	이만수	198
장효조	44	김성한	194
김성한	43	이종범	170
이만수	38	박재홍	163
이종범	공동 5위	홍현우	160
김기태	30	김기태	156
심정수	21	심정수	152
백인천	18	장종훈	150
이순철	17	한대화	148
김성래	공동 10위	장효조	공동 10위

이러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KBO 공식기록원에 의해 기록된 모든 기록과 프로원년부터 지속되어온 기록들을 DB화하여 별도의 사이트로 구축한다면 지도자, 선수, 일반인, 교육기관 등에서 다용도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야구기록 역시 기록의 4가지 특성(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확보와 유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어야 한다. 야구 기록방식은 매체의 발달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기록을 보존, 발굴하는 분야에도 치중해야 한다. 중계방송과 인터넷 방송, 인터넷이 활성화된 최근의 기록은 발전된 팬층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거의 기록은 중계방송 혹은 라디오 방송만을 참고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과거 영상을 확보할 경우 상당수가 화질이 떨어진 테이프 형태로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디지털화 및 복원도 함께 실시하여 야구 기록은 대한민국 야구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헌액(獻額) 대상자들의 통산 기록을 판별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KBO Archives(가칭)이 완성되어야 한다. 명예의 전당 선정에 있어 야구기록뿐만 아니라 야구 외적인 선수에 대한 품성과 인성, 사회적인 지위, 국민적 인식까지 종합한 기준이 필요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야구는 기록을 기반으로 기록이 가공되어 데이터로 발전되는 종목이므로 누적된 기록을 통해 한 선수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명예의 전당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경기 기록은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

4.2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아카이브 구성 방안

아카이브즈(Archives)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

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입수한 기록으로서, 직접적인 목적이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거나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 데 있어 의미를 지닌 자료를 의미한다. 즉, 명예의 전당 아카이브는 기관이 가지는 기록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구기록의 보존의 통상적인 아카이브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 및 지식 창출의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한국 야구의 태동부터 프로야구의 출범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자료를 후대에게 전달을 통한 문화 공유 등의 서비스 역할까지 동반하는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야구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프로야구를 통해 큰 기쁨을 안겨준 영웅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아카이브는 야구기록을 바탕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명예의 전당 헌액(獻額) 대상자에 대한 수집 기록과 개인 기록 등을 모두 포괄한 기록범위를 형성하여 구축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선수들의 기록과 비 선수들의 기록, 향후 명예의 전당이 완공되어 1호 입회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들의 기록, 기증품을 통해 수많은 야구팬들의 문화적 기억과 추억을 회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명예의 전당 아카이브가 담당하며 수집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기록과 개인기록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포츠 기록이 가지는 특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에 비해 기록관리 체계의 부족함과 인식의 부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야구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한 결과 그들 역시 옛날 야구 기록에 대한 복원과 함께 야구기록과 행정기록 모두 ‘한국야구명예의전당’과 아카이브 센터가 앞장서서 관리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요원의 배치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야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추가적으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지는 이점은 부족하지만 수많은 관광객과 부산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연계하여 부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와 테마파크로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면 다양한 효과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0인의 관련 종사자들과 논의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아카이브 주요 컬렉션은 <표 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4.3 한국 야구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아카이브 수집 방안

개인 기록을 수집할 때에는 기증하는 기록물을 받는 방법과 수집대상의 기록물을 파악하여 직접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아카이브는 구축 주체 및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는데, ‘한국야구명예의전당’의 경우 기관/단체/개인 등이 후속세대에 교육적 감동적 가치를 전하고 향후 교유 콘텐츠로 활용할 목적으로 유명인 개인의 노력과 업적, 전환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는 ‘유명인 기념형 아카이브’에 해당한다.

이들의 기록을 수집하려면 가장 먼저 수집대상을 선정하고 기록물의 소재정보 파악과 소장

〈표 5〉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아카이브 주요 컬렉션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아카이브 주요 컬렉션	기록물의 종류	기록물의 출처
건설과정에 관한 기록 컬렉션	① 한국야구위원회와 부산시 기장군간의 양해각서 ②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③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관련 기사 ④ 착공식 때 발생하는 기사, 사진, 영상 ⑤ 완공 때 발생하는 기사, 사진, 영상	한국야구위원회, 부산시 기장군,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신문사의 기사, 사진, 영상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기록 컬렉션	① 은퇴선수 - 은퇴선수의 통산기록, 시즌기록, 수상기록 수집 ② 비선수 - 비선수의 활동경력, 담당업무 수집 ③ 헌액(獻額) 대상자 선정 기준안 및 절차에 관련된 문서 ④ 투표인단 구성, 투표절차 관련된 문서	한국야구위원회, 신문사의 기사, 사진, 영상, 명예의 전당 선정 위원회, 명예의 전당 투표인단
'한국 명예의전당' 완공식과 임회식 행사관련 컬렉션	① 1호 임회자와 관련된 기록 ② 헌액(獻額)식에서만 존재하는 기사, 사진, 영상 ③ 헌액(獻額)식과 관련된 행사진행 문서 ④ 임회자에게 주어질 상패, 명패, 흉상	한국야구위원회, 신문사의 기사, 사진, 영상, 임회식을 방문하는 관계자, 프로야구 팬의 영상, 사진, SNS
임회자별 수집기록 컬렉션 및 한국야구 역사 컬렉션	① 임회자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기록, 선수시절 영상, 기증품 ② 한국 야구 전반 역사를 재조명하는 영상, 기록, 사진 ③ 임회자 외에도 한국야구를 대표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기록, 영상, 사진 ④ 조감도에 맞는 아카이브 전시 ⑤ 명예의 전당 전시를 위한 물품기증, 수집을 요청하는 운영위원회의 문서	임회자의 기증, 프로야구 팬의 기증, 신문사의 기사, 사진, 영상, 한국야구위원회 아카이브센터,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

자와의 협의, 수집계획 수립의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이 진행된다. 관련 기록물의 소장처는 일반 행정 기록물보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될 수 있다. 헌액(獻額)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가족, 심판, 야구계 종사자, 구단을 비롯한 야구 관련 기관, 지역, 팬, 소셜 네트워크 등의 접촉을 진행한다. 헌액(獻額) 대상자와 야구 영웅들과 관련된 기록물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유실 및 훼손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집해야 한다.

그들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록물은 물론 그 때 당시 대기록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배트, 글러브, 공 등을 수집하여 개인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다. 기록물 수집을 담당하는 아키비스트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기증자에 대한 관리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 기증자에 관한 심리적 관리, 권한 문제, 기록물 평가에 따른 기록물의 일부 반환 가능여부 고지, 기록물에 해당하는 다양한 관계까지 상세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직접 모든 수집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기관의 차원에서 명예의 전당에 대한 취지와 기록물 수집을 통한 국가적 예우에 대한 설명 또한 지원된다면 기증자로서 조금 더 수월하게 기증에 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유사사례를 기반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에 해당하는 관련 기록물 수집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국야구명예의전당’ 관련 기록물 수집 절차

개인 기록물 수집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 당시 기억과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구술채록 자료 또한 중요한 기록물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1990년을 전후로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과 정부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사건 혹은 계층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이 시작되었다. 국내 기관 가운데 지속적으로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료와 기록물의 정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체육 기관으로서 구술채록을 선행한 대한체육회의 사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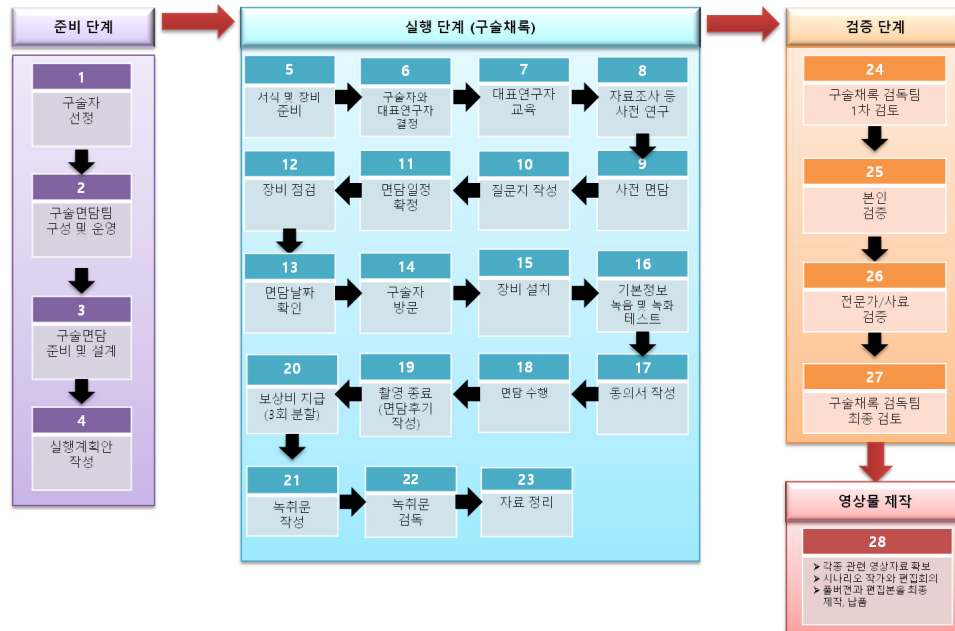
2004년부터 주제어를 중심으로 구술채록을 진행 중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 역사 가운데 개인과 집단 경험을 사료화하여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조를 통하여 한국 구술사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매년 구술사 공모사업을 통해 기본 매뉴얼을 교육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구

술기록 수집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구술자 결정부터 구술채록 수집 기록물 정리까지 10단계에 거쳐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교육, 지역사, 여성사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구술채록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15년 한국체육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체육인의 생애사를 기록하고 체육근대사 및 역사보존으로서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종목의 차별성 없이 총 25명의 스포츠원로들을 선정하여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하였다.

스포츠라는 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그들의 구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활동 당시의 영상과의 결합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술사연구와는 차별성이 존재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활용했던 구술채록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야구 영웅 일대기를 파악하고자 생애사적 집



〈그림 3〉 구술채록 진행 절차

참고: 대한체육회 201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완료보고서 p. 4

근방법을 통해 구술채록을 진행한다. 야구선수를 꿈꾸게 된 유년시절, 학생 때부터 시작된 아마야구 시절, 프로무대에 뛰어든 순간부터 은퇴 순간까지, 은퇴 후의 삶까지 순서대로 접근하여 진행해야 한다. 본인의 생애 가운데 귀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기억들을 회상해 낼 수 있도록 연구자는 구술 대상자와 라포 형성을 구축하고 그들의 통산 기록도 함께 확보하여 구술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한 명의 구술채록을 완성하는 데 10~1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그들의 기억을 담아낸 영상, 목소리는 구술채록에서 산출될 수 있는 기록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훼손되지 않도록 채록이 끝난 즉시 녹취문 작성을 실시한다. 녹취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은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보존한다. 녹취문

검독 단계에서 구술자 본인 검증을 통해 다소 민감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의 경우는 이를 반영한 후에 프로야구 팬들에게 공개한다. 이와 같은 구술채록 자료는 수집기록물과 결합하여 2011년 제작되었던 퍼펙트게임, 2008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같은 문화콘텐츠로도 구성될 수 있기에 그 활용가치는 매우 다양하다.

장비의 발달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최근 프로야구는 비교적 프로 원년에 비해 나은 여건 속에서 선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어려운 지원 속에서도 현재까지 프로야구의 역사를 유지시키고 국제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널리 알린 야구 영웅들의 기록과 그들의 야구 생애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야구기록 활용에 기반한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보았다.

연구에 앞서 오랜 역사만큼 관련 야구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역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선수 개인의 통산기록을 활용하여 심사단계를 진행하며, 최종 입성한 대상자의 관련 기록과 수집기록물을 한데 모아 명예의 전당 아카이브로서 구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박물관과 연계하여 전시를 진행하고 구단 차원에서 직접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야구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에 대하여 아키비스트와 학예사의 배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야구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하여 과거 야구 기록지는 상당수 폐기되었으며, 남아있는 기록지 또한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음을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야구 기록은 한 나라의 야구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식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아카이브 센터 역시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으로 인한 기록물 수량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아카이브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야구 영웅의 생애와 감동을 기억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에서는 곳곳에 산재되어있는 경기기록의 DB화 및 데이터 구축을 선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역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야구 경기에서 발생하는 기록물과 야구 행정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프로야구의 대표기관인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선행하여 기록물이 방치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를 통해 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브센터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개인에서 생산될 수 있는 야구기록들에 대한 수집과 기증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다. 한국야구가 도입된 지 111년, 프로야구 35주년의 역사가 흐른 만큼 현재 프로야구와 다양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 사회와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도 스포츠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 권선형 (2013). 한국야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김은영 (2009).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구술기록의 정리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트랙.
- 김재운 (2003). 교사의 스포츠형 여가활동 참가와 교직 스트레스, 교직만족 및 자아실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 박일혁, 김주학, 천호준, 최형준, 인상우 (2013). 스포츠 사이버명예의전당 구축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1(2), 111-125.
- 송은영 (2009). 참여 스포츠 형태에 따른 스포츠 성향별 신체적 자기효능 및 생활만족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 인상우, 나영일, 천호준 (2007). 근대 스포츠기록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1(1), 31-40.
- 임재구 (2009). 스포츠미디어를 통한 해계모니와 영웅주의.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35-52.
-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트랙.
- 최송화 (2008). 스포츠 영상 아카이브 구축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 최유리, 임진희 (2016).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7(1), 5-49.

[참고사이트]

-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검색일자: 2016. 7. 27. <http://hero.sports.or.kr/v2015/index.jsp>
- KBO, 야구사료 통합 아카이브 홀 설립. 검색일자: 2016. 7. 26.
<http://osen.mt.co.kr/article/G1109483162>
- 부산, 한국프로야구 명예의 전당 생긴다. 검색일자: 2016. 7. 2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03041349013031
- 한국야구위원회. 검색일자: 2016. 7. 20. <http://www.koreabaseball.com>
- 헨리 채드윅(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소개). 검색일자: 2016. 7. 21.
<http://baseballhall.org/hof/chadwick-henry>
- 한국 야구기록의 역사. 검색일자: 2016. 7. 21.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295&aid=0000000627>
- KBO 홈페이지 개편. 검색일자: 2016. 7. 23.
<http://sports.mk.co.kr/view.php?no=212719&year=2015>
- 국가기록원-국가지정기록물제도. 검색일자: 2016. 7. 24.
<http://archives.go.kr/next/data/nationalArchiveIntro.do>
- [김형준의 인사이드 MLB] 2014 명예의 전당, 누가 들어갈까. 검색일자: 2016. 7. 22.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224&aid=0000003109>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검색일자: 2016. 7. 20. <http://baseballhall.org/>
일본 야구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검색일자: 2016. 7. 21.
<http://english.baseball-museum.or.jp/index.html>
명예의 전당 관문에 선 박찬호, 몇 표나 얻을까? 검색일자: 2016. 7. 21.
<http://osen.mt.co.kr/article/G1110049014>
일본 프로야구 명구회. 검색일자: 2016. 7. 23. <http://osen.mt.co.kr/article/G1110032892>
부산, 한국프로야구 명예의 전당 생긴다. 검색일자: 2016. 7. 24.
<http://sports.donga.com/3/all/20140304/61443028/3>
KBO, “명예의 전당 1호 입회자, 2016년에 나온다”. 검색일자: 2016. 7. 23.
<http://osen.mt.co.kr/article/G1109797581>
국사편찬위원회. 검색일자: 2016. 7. 23. <http://www.history.go.kr>

[관련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책자]

2015 스포츠인 역사보존사업 (2015). 대한체육회 완료보고서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ong-Hwa (2008).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sports visual Archive - Focused on the Olympic visual records.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Myongji University The Graduate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Records. SportRecording Analysis.
- Choi, Yu-Ri & Yim, Jin Hee (2016). A study on Management of Person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es Studies, 47(1), 5-49.
- In, Sang-woo, Na Young-il, & Chun Ho-Jun (2007). The Type and Feature of Sport Records in The Korea Modern Era: A Critical Review. Seoul University Sports Science Institute, 1(1), 31-40.
- Kim, Eun Young (2009). A study on Oral History Arrangement Methods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 Focused on the case of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Myongji University The Graduate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 Science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Track.
- Kim, Jae-ou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port leisure activity and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self-actualization of teachers. Doctorate thesis. Seou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jor in Physical Education.
- Kwon, seon-hyung (2013).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f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jor in records management.
- Lee, Eun-Hwa (2009). A Study on Personal Record Collections at Archives - Analysis of Bae Min Su Collection.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Myongji University The Graduate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Track.
- Lim, Jae-Goo (2009). Herosim and hegemony through media sport. Philosophy of Movement, 17(3), 35-52.
- Park, Il-Hyeok, Kim, Ju-Hak, Chun, Ho-Jun, Choi, Hyeong-Jun, & In Sang-Woo (2013). Management Plans for Developing the Cyber Hall of Fame for Sport.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11(2), 111-125.
- Song, Eun-Young (2009). Differences of physical self efficiency and living satisfaction across sports types and orientation in adolescents. Dissertation fo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in Physical Education.